

손태랑 선생님께,

깊고 진지한 논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에 제 이해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문제 풀이 중 선생님께서 주신 것들만이 유일하게 치밀한 논리 전개로 ③을 도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③이 답안이라고 한다면, 지문과 보기로부터 ③이 도출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제 풀이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치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지문으로부터 답을 끌어 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주신 글은 ③을 도출하시려는 과정이 17번 문항이 실제로 매우 어려운 문제 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문과 보기의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의 글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따지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글을 주셔서 한번 제대로 따져 볼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논쟁을 하고 논증을 펼 때는 어느 층위에서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상대방이 있을 때에 깊고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 같아서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족: 손태랑 선생님 글에 매우 'brilliant'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체 논지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빼거나 주석으로 넣는 스타일이어서 이를 언급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사족은 무시하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  
17번 문제를 푸는 데에 핵심이 되는 표현은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 둘러 싸인 것들은 해당 표현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는 개체와 속성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속성은 이 개체가 갖는 것입니다. 각 개체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속성은 여러 개의 개체가 공유해 여러 곳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문과 보기에서 [의식],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는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가령 <보기>에서 갑은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떤 두뇌라는 개체에서 (특정 내용을 담은) 의식이라는 속성이 발현되고 있을 때 이 속성을 프로그램 재현을 통해, 가령, 컴퓨터도 발현하는 경우를 상상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즉, 의식이라는 속성은 두뇌라는 개체를 통해 발현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 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의식이 동시에 두뇌와 컴퓨터를 통해 두 군데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의식이라는 속성이 발현된다는 것이지, 꼭 어떤 개체가 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의식이 있다]는 표현이 개체/존재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족: 이 점이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논증이 오류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문에서도 [의식],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는 표현이 속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여기서 칸트는 자기의식이 있다고 무언가가 존재/실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식은 속성의 발현이지 개체가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개체가 있어서 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보기>만 가지고 [‘생각하는 나’]가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 개체를 가리키는 (사족: 정확하게는 개체들의 집합을 외연으로 갖는) 표현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지문과 <보기>에서 [‘생각하는 나’]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기>를 봅시다.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갑은 의식을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속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의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 스캔 전에는 하나만 존재하던 ‘생각하는 나’가 스캔 후에는 두 개(손흥민 선수의 ‘생각하는 나’ +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는데,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면 하나의 개체가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성과 개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각 개체는 하나만 존재하지만 속성은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생각하는 나’]가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면 ‘생각하는 나’가 손흥민 선수의 두뇌를 통해서도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재현되어서도 발현될 수 있으므로, [‘생각하는 나’]라는 표현을 갑이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족1: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표현을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때, <‘생각하는 나’=영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존재자인데, 존재자가 속성과 하나의 동일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때,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의 ‘생각하는 나’인 존재자가 t2의 ‘생각하는 나’인 존재자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 발현이 t2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발현과 특정 방식

으로 밀접하게 (가령 칸트식으로 말하면, 앞에서 사유된 내용이 뒤로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되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가령 손흥민 선수의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는 말은, 스캔 전 손흥민 선수에게서 발현하는 '생각하는 나' 발현과 스캔 후에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 발현이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캔 전 손흥민 선수에게서 발현하는 '생각하는 나' 발현과 스캔 후에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 발현은 다른 곳 다른 시간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다른 발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이 ['생각하는 나']라는 표현을 개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이 해석은 좀 그럴듯하지는 않은게, 만약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면 생각을 하고 있는 컴퓨터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없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에서 바로 ['생각하는 나']라는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석해도 갑이 사용하는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시 손흥민 선수의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를 고려해 봅시다.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 할 때, 스캔 전에는 손흥민 선수라는 하나의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는 후, 스캔 후에는 손흥민 선수라는 '생각하는 나'(=손흥민)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복제품)가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 할 때, 이 상황에 대해 갑은 스캔 전 손흥민이라는 '생각하는 나'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복제품) 사이의 관계가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이 말하는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의 손흥민이라는 '생각하는 나'와 t2의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복제품)가 하나의 동일한 존재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2에 손흥민은 원래 자기 몸을 가지고 따로 존재하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고 하더라도, 갑이 말하는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손흥민이라는 '생각하는 나'가 생각하는 의식의 내용(속성 발현)이 t2의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생각하는 나'(복제품)가 생각하는 의식의 내용과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③의 선지를 보면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과 관련된 갑의 입장이므로 ③에 등장하는 갑의 입장은, 만약 '생각하는 나'가 속성이라면,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 발현이 t2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발현과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만약 '생각하는 나'가 개체라면,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생각하는 나'라는 개체가 갖는 의식의 내용(속성발현)이 t2의 '생각하는 나'가 갖는 의식의 내용(속성 발현)과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요약하면,

③에서 말하는 갑의 입장의 이중형 해석:

(1)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 발현이 t2의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발현과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면

(2)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의 '생각하는 나'라는 개체가 갖는 의식의 내용(속성발현)이 t2의 '생각하는 나'가 갖는 의식의 내용(속성발현)과 칸트가 말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은 (1)의 경우, <모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을 발현하고, 모든 ‘생각하는 나’라는 속성은 영혼에 의해 발현된다>를, (2)의 경우, <모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고,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다>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1)의 경우든 (2)의 경우든, 갑이 말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해서 영혼이 지속하지 않습니다. 갑이 말하는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는 것은 t1과 t2에서의 두 개의 발현이 칸트가 말한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영혼이 지속한다는 것은 t1의 영혼과 t2의 영혼이 하나의 동일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대체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유한 내용이 새 영혼으로 온전히 전달되고 이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되면, 손흥민 선수의 영혼도 ‘생각하는 나’가 갖는 (혹은 ‘생각하는 나’라는) 의식을 발현하고 새 영혼도 ‘생각하는 나’가 갖는(혹은 ‘생각하는 나’라는) 의식을 발현하여, 두 발현이 칸트가 말한 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지만, 영혼이 지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고 해서 영혼이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대체되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해 앞 글에서 칸트의 복수의 주관 견해를 언급한 것은 칸트 이전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져와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논증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논증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법은 전제가 모두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칸트와 무관하게 손흥민 선수의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대체되는 상황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이 미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도 언급된 가능성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점을 수험생이 지문만 읽고 생각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은 지문과 <보기>가 모두 참이면서도 ㉓이 거짓인 상황이 존재함을 보이려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지문과 <보기>로부터 ㉓이 따라나오지 않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지문과 <보기>의 문구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지문과 <보기>의 문구를 사용해서 ㉓을 도출할 수 있으면 실패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는 방식은, 이 작업이 지문과 <보기>의 문구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지문과 <보기>의 문구를 사용해서 ㉓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 풀이는 지문과 <보기>의 문구를 저와는 다르게 해석해 ③을 도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 풀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하는 나']를 속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반면 칸트는 ['생각하는 나']를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의 지문을 보면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의식이고 따라서 속성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식이 있다고 해서 꼭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나'를 개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칸트 이전 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지문에 설명이 없습니다만 그럴듯한 해석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고, 모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다>를 보이려는 선생님의 논증은 좋은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논증의 핵심은 3 쪽 상단의 다음이라고 판단합니다. .

**결론적으로, '칸트 이전'에 따르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은 '영혼의 지속'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칸트 이전'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칸트 이전'에 따르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다”는 인정합니다. 하지는 둘째 줄의 “'생각하는 나'의 지속은 '영혼의 지속'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가 따라나오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가 지속한다]를 갑의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가 t2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영혼이 지속한다]를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영혼이 t2에서 존재하는 영혼과 하나의 동일한 존재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해석은 선생님과 제가 공유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로부터 ③을 도출합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께서는 ③의 갑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③에서 말하는 갑의 입장의 손태랑 해석:

(3)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가 t2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위 상자의 (3)은 당연히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한 점입니다.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에서 말하는 갑의 입장은 ‘갑의 입장’, 갑이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입니다. 갑은 앞에서 논증했듯이 (1)이나 (2)의 생각을 하고 있지 (3)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선생님의 해석은 부적합해 보입니다. 칸트 이전 견해뿐만이 아니라 (3)은 소위 사소하게 거짓인 주장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적어도 주어진 순간에 인격일텐데,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가 t2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이면, 당연히 인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갑이 이를 부인하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1)이나 (2)의 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3)의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이고,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입장은 이를 부인하므로, ③ 맞다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이지만 문장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영희는 먹는 배라는 의미로 <배>를 사용하고, 철수는 물어 떠서 가는 배의 의미로 <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하는 다음의 대화를 봅시다.

영희: 나는 어제 엄청 큰 배를 샀어.

철수: 너의 주장은 거짓말이야. 너는 작은 배를 살 돈도 없잖아.

이 경우 철수는 영희의 주장하는 명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희가 말한 바와 전혀 다른 명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 둘의 의견 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③에서 말하는 갑의 입장을 선생님처럼 해석할 경우, 칸트 이전 견해와 갑의 입장 차이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